

I want to make you happy
because seeing you smiling makes me happy!

박영숙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여성재단 정수현입니다.

지난 3년간 한국여성재단에서,
박영숙 이사장님 모시고 일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도 모든 이를 헤아려주시고,
한결같은 모습, 성실과 열정적인 모습으로
사무처 직원들 뒤에 든든하게 계시주셔서
이사장님이 항상 자랑스러웠습니다.

배운
여성재단에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느 자리에서 일하게 되더라도
조직과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좋은 봄날, 내내 평안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뵈실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2006. 3. 9.

정수현 올림.